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인도: 가족 중에서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올 한해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설날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 상 기 도 인 도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찬 송 430장(통456).....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 도 말 은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 편 1:1~6 인 도 자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 씀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슈레”(אֲשֻׁרֵה)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복’보다 ‘행복’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흔히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성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슈레”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곧 내면의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2절).

시편 기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분명하게 확정짓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와 율법을 알고, 둘째,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셋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자의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지나간 시대의 고리타분한 문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고, 모든 복의 근원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חָגַג)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깊이 되새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눌러 마음에 담고, 천천히 읽으며,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나눔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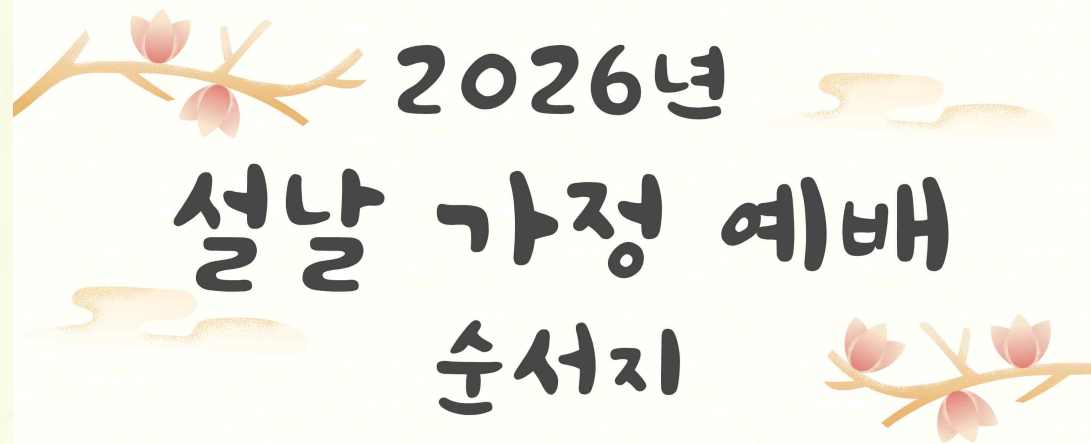
찬 송 559장(통305).....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 기 도 문 인 도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